

문화광장



이 한 연  
제주해녀문화보존회장·교육학박사

필자는 혼자 택시를 타면 항상 운전자의 옆 조수석에 앉는다. 이유인즉, 기사님들이 대부분 필자보다 연배인 데다가 뒷좌석이 상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기사님들과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자가운전을 하는 필자가 택시를 뺏다는 건 대부분 음주 후일 가능성이 크다. 술 한잔 걸친 취기 오른 손님과의 대화가 불편할지도 몰라 나름 최대한 예의를 갖춰 기사님과 세상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 때론 짧

해녀 vs 택시

은 만남이 아쉬워 서로 연락처를 나눠 또래면 친구가 되고, 연배면 인생 선배로 모셔 좋은 인연이 되곤 한다. 필자는 마틴스콜제지 감독의 ‘택시드라이버’를 보고 고독한 뉴욕 밤 거리를 운전하는 로버트드니로의 모습에 반해 잠시 택시 기사를 꿈꾼 적이 있다. 당시 택시운전자격증이 막 도입됐을 때라 자격증을 취득해 택시회사에 찾아갔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필자는 근 30년간 전국에서 수백 아니 수천 번의 택시를 뺏을 것이다. 그런데 30년간 기사님들과 대화의 첫 화두는 언제나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매해 ‘올해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는 그분들의 말에 때론, ‘경제순환주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왜 항상 어렵다고만 하실까’ 의아해 하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님의 경제적 입지가 점점 좁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분들의 고충을 심분 이해하게 됐다. 몇 년전 한림에서 성산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택시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림지역택시로 전화하니 기사님이 와주셨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다가 퇴직 후 개인택시를 하신다고 했다. 택시에서 흔히 않은 재즈음악이 흘러나와 사연을 물으니, 평소 재즈음악을 좋아했던 기사님은 건강을 위해 즐기던 술, 담배를 끊고 악기를 사서 독학으로 배우고 있단다. 필자도 색소폰을 연주한다는 말에 기사님은 나의 동의를 얻는듯 마는듯 하며 차를 한적한 바닷가로 몰았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 있다며 트렁크를 열자 색소폰, 코넷, 피콜로트럼펫 등 여러 금관악기들이 있었다. 하나씩 꺼내 보여 주며 합주를 하자신다. 필자도 일정을 마친 터

라 흔쾌히 응했고 제주 밤바다를 배경으로 우리의 즉흥연주는 몇 시간이고 이어졌다. 최근에 뺐던 이 인상 깊은 택시 기사님 이야기는 ‘경제적 상황이 인간의 행복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매년 택시운전자가 고령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공유경제 시대에 맞춰 생겨난 카셰어링이나 카풀 그리고 플랫폼택시의 도입으로 택시가 설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급변하는 세상, 그 변화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닐 것이다. 필자에게 택시 기사님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점점 고령화되고 수입이 줄어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제주해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이지 않을까?

사설

백두산 탐사, 제주발 대북교류의 밑거름

한라산과 함께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백두산은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한라산과 유사한 화산지질학적 특성과 함께 식생 분포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자연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연구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 취재팀이 지난달 5일부터 10일간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한라산과 백두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한 탐사에 나섰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한 백두산 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보의 한라산-백두산 학술비교 탐사는 지난 2000년 처음 시작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접경

지대와 연변 조선족 사회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번째 진행된 탐사는 백두산의 역사문화와 화산지질, 식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알다시피 한라산과 백두산은 남과 북을 상징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분단을 넘어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슬로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보가 지속적으로 한라산의 가치에 주목하고, 백두산과의 학술연구 및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희룡 도정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대북교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겁니다. 백두산과의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과 학술교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본보의 백두산 탐사가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카지노산업도 변화 불가피하다

제주 드림타워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드림타워내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사업시행자인 롯데관광개발은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동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제주롯데카지노 지분을 매입해 드림타워 완공 시점에 맞춰 카지노 영업장을 확장,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적은 9120㎡로 기존 카지노 영업장 면적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에 제주도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따라 이전여부를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아시아 카지노산업이 격변의 소용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간 호황을 누렸던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은 군둔박질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8개 카지노 매출액은 922억3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49억여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국내의 복합리조트 카지노들이 들어서면서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8개 카지노 매출액을 모두 합쳐도 국내 복합리조트 카지노인 인천파라다이스시티(1616억원)보다 624억여원이나 적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리조트와 카지노를 함께 즐기는 최신 관광 추세에 맞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2024년을 목표로 법령까지 제정하며 5군데에 복합리조트를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리조트와 맞붙려 카지노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국부 유출은 물론 인력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카지노 크기로 이전여부가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전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실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마당

화북포구에서 ‘화북유배문화제’와 함께



장 승 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화북포구는 조선시대 유배인을 제주목에 인계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이곳으로 들어온 유배인이 많았다. 서재임징하, 우암 송시열, 추사 김정희, 면암 최약현 등 유배인들도 이 포구로 들어왔다. 광해군의 시신이 보름여간 모셔졌던 나간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를 오가는 이들의 애환이 서린 포구로 ‘배비장전’에서 정비장과 제주기생 애랑이 이별의 정회를 나누던 문학의 현장이고 포구 서쪽에는 바다 용왕신을 모시는 해신사가 있어 매년 제를 통해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곳이다. ‘제주의 화북진을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쓴 추사 김정희의 시에 화북

포구에 내린 유배인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였음과 유배 온 이의 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시의 번역문을 인용하면 (고영철의 역사교실 홈페이지) “촌 아이들을 몰려들어 저거 보라고 소리치니/ 귀양다리 내 얼굴이 괴상한 점이 많아 서 구나/ 결국 백번 꺾이고 천 번 꺾혀 온 곳에는/ 남극성만 은헤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빛나는구나” 이다. 9월 27~28일 개최되는 화북유배문화제는 화북포구를 경유한 유배인들의 스토리를 소재로 한 주제공연, 제주 유배문화바로알기 특강 및 유배문학전시 외에도 화북포구 해신사를 배경으로 어린이 해신제 재현, 화북이배경인 배비장전 공연, 별도연대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을 포함해 제주의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화북유배문화제에 오면 제주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고, 제주의 역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많은 분들이 제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시민이 체감할 정책지원 아까지 않겠다”

원지사, 현장간담회서 표명

○…원희룡 도지사는 2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서귀포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 원 지사는 이날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강조.

원 지사는 “도의회도 설득 가능하며, 시민들이 문화생활이나 체육·복지 등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및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리해주면 가급적 뒷받침하겠다”고 약속. 조상윤기자

중소기업 특별자금 기간 연장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국내외 시장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민감업종 등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에서 9월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10억원으로 확대.

한은 제주본부는 특별자금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도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백규탁기자

SNS 마케팅 무료 교육 진행

○…제주시가 영세업체 15곳을 선정해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SNS 마케팅 무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 이번 교육은 예비사회적기업인 고르라제주의 SNS 전문가를 섭외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콘텐츠 기획 방법 등을 강의할 계획.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은 “교육 신청은 9월 2-6일까지이며 제주시청 홈페이지와 팩스(064-728-2299)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며 “영세상인의 마케팅 활용능력 증대로 소득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부 고

조명옥(前 제주시농협지점장) 어머니  
진주강씨 정옥( 享年 101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일 01시 07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3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4일(수)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남읍리 친족묘지

아 들 조형옥 며느리 박봉순  
응옥 김원자  
영옥 현순희  
명옥 김경숙  
딸 조춘자 사 위 강승구(故)  
영자 현상익

※ 연락처 : 조형옥 010-3563-3461  
조응옥 010-6334-1921  
조영옥 010-3691-4889  
조명옥 010-4326-6049  
조춘자 010-4696-5716  
조영자 010-8524-4026

부 고

조정길(한국GM 부장) 아버지  
한양조공 태일( 享年 86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일 21시 1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3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4일(수)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대정읍 선영

부 인 김옥인  
아 들 조정길 며느리 최은실  
정식 김영향  
정원  
딸 조민경 사 위 장대준  
정순  
정화 김영보  
정임 강경철  
정열 김중훈  
손 자 조현욱 외손자 장현제  
현수 김승찬  
현주 강민창  
손 녀 조혜민 외손녀 장하연  
연지

※ 연락처 : 조정식 010-8399-3662  
조민경 010-3265-8775  
조정화 010-4696-9274  
김영보 010-9995-2386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국내 특허 제품이며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함.  
도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바이오펙티민  
무료 제공기간 2019. 8. 27 ~ 2019. 10. 31  
※ 모공이 닫힌분은 전혀 효과없음  
TEL. 064-725-0622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제주편백우드(영)  
제주시 보배길32-16 (제주대학교병원쪽)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충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강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자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